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 최근 국내경제 실물지표 부진
- 경영 노트
 -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
- 사회 트렌드
 - 20대 女 경제활동참가율, 작년 사상 첫 남성 추월
- 저널 브리프
 - 부하직원 육성의 원칙
- 洗心錄
 - 경험과 기억 사이의 혼동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유로존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
 - **긴축완화 가능성** :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반긴축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과도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재조정하여 재정위기국들의 부채상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 **은행 감독 강화** : 은행 경영진 보너스 규제 방안과 자기자본 확충 등 감독을 강화하여 은행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EU의 금융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 **키프로스 구제** : 키프로스는 2012년 6월 국제통화기금 등에 17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으나 규모와 조건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구제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
- 최근 유로존 회원국들의 경기 진작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고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유로화 강세 및 고 실업률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

□ 최근 국내경제 실물지표 부진

-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한 모습
 - **고용** : 1월중 고용은 신규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2.2만 명 증가하여 지난 달(27.7만 명)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나, 고용률은 57.4%로 3개월 연속 60%를 하회
 - **생산** : 1월중 광공업생산은 영상음향·반도체 등이 줄어 전월대비 1.5%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임대·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0.9% 감소
 - **소비 및 투자** : 1월중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2.0% 감소,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투자가 축소되어 전월대비 6.5% 감소
- 국내경제는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미국의 예산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 시행, 이탈리아 정치불안 등 대외 리스크가 상존하여 국내 경기의 회복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경제 민주화에 대한 시각¹⁾

-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개념이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등장하여 사회적 갈등을 양산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
 - 보수 진영은 경제 민주화를 시장경제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진보 진영은 시장경제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인식
- 경제 민주화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국민이 경제활동의 주체가 됨’을 의미 하지만 경제활동과 주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과 해결책 도출
 - 경제 민주화를 경영학적으로 풀면 기업 내부의 지배구조 문제가 되고, 경제학적으로 풀면 대중소기업 간의 산업 구조의 문제가 됨

<경제 민주화를 바라보는 경영학과 경제학의 시각>

구분	내 용
경영학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부를 연구하는 경영학자들은 기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바라보고 지배구조라는 틀로 기업 주체를 연구하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를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라는 관점으로 접근 • 미국의 주주자본주의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주주와 경영자간의 갈등이 문제되는 반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에서 논의되는 경제 민주화는 소액주주와 기업 오너 간의 갈등 문제가 부상 • 보수 진영은 기업 오너들이 경영권을 계속 행사해야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유지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계열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와 경제력 집중을 부분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 • 한편 미국형 주주자본주의나 유럽형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기업 오너의 경영권을 실제 지분 이상으로 부풀려주는 상호출자, 순환출자의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경제학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학자들은 기업을 정부, 가계와 더불어 시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로 보고 기업 내부보다는 기업과 시장의 관계를 연구 주제로 삼음 • 시장을 구성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중시 • 보수파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이나 금융지원과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만을 옹인 • 진보파는 출자총액 제한, 업종 전문화, 동반성장,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적극적인 정책을 선호

1) ‘CSV 장착한 자본주의 5.0이 답이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13.02)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 20대 女 경제활동참가율, 작년 사상 첫 남성 추월²⁾

-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남성을 처음으로 추월
 - 20대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진 반면 남성은 군 입대와 취업난 등으로 취업 시점이 전반적으로 늦어진 점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
 -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처음으로 앞질렀음
- 10년 전인 2002년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1%로 20대 남성(70.9%)보다 9.8%포인트 낮았음
 -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5년 64.4%까지 올랐다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한 반면 20대 남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졌음
- 이런 결과는 여성의 경쟁력 향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 82.4%로 남성(81.6%)을 추월한 뒤 4년째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음
 - 또 이전보다 20대 여성의 자기계발 성향이 강해지고 결혼과 출산이 늦어진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힘
-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사실상 실업자의 증가와 취업난이란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음
 - 20대 남성 실업자는 2002년 19.6만 명(실업률 8.1%)에서 2012년 16.1만 명(8.5%)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비경제활동인구는 99.4만 명에서 112.4만 명으로 급증
 -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재학·수강, 취업·진학 준비, 군입대 대기, 쉬었음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실업률에 잡히지 않지만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음
 - 이들이 실업자로 분류된다면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금보다 높아짐
- 30대로 접어들면 우리 고용 현실과 가까워짐
 -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0%로 30대 남성(93.3%)보다 무려 37.3%포인트 낮았음
 - 결혼해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시기인 30대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락해 남성과 격차가 크게 벌어짐

2) '20대 女 경제활동참가율, 작년 사상 첫 남성 추월'(헤럴드경제, 2013.3.7)을 요약 정리함

□ 부하직원 육성의 원칙³⁾

-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는 부하직원을 성장시키는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일관된 실천 전략이 필요

① 부하 모두를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은 버려라

- 리더가 부하직원 모두를 육성하기 위해 골고루 시간과 관심을 부여하는 것은 시간과 역량 부족 등 여러 제약 조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
- 리더가 실천해야 할 공정함이란 모든 부하를 똑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태도나 의욕에 상응하는 만큼의 시간과 도움을 주는 것

② A급 인재 육성에 노력의 80%를 투자하라

- 모든 부하를 육성할 수 없다면 우선 역량과 업무 태도 모두 뛰어난 A급 인재를 중점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임
- 또한 역량은 뛰어나지만 업무 태도가 부정적인 부하보다 역량은 부족해도 업무 태도가 긍정적인 부하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③ 부하의 단점 보완보다 장점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라

- 단점 보완식의 육성은 부하들을 부정적이고 자기 방어적으로 만들기 쉬우며 단점을 극복하는 것만으로는 차별화된 개인 역량을 계발하기가 불가능
- 부족한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다면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

④ 내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진 부하를 육성하라

- 대부분의 리더는 친근함과 편안함을 이유로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부하를 육성하려 하지만 이 같은 육성 전략으로는 팀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없음
- 리더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부하를 육성해야 함

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도전적인 과제를 통해 키워라

- 말로 가르치려 하다 보면 부하들의 실수나 실패에 집중하게 되어 부하를 육성하려는 상사가 아닌 잔소리만 하는 상사로 여겨지게 됨
- 우수한 인재일수록 신규 사업이나 실적이 부진한 업무에 배치하고 이를 리더와 함께 풀어나가게 하는 방식을 통해 육성하는 방법이 효과적

3) 'A급 직원에게 내 시간의 80%를 투입하라'(동아비즈니스리뷰, 2013.01.24), '스티브잡스는 왜 팀웍을 키웠나'(동아비즈니스리뷰, 2013.02.28) 참조

□ 경험과 기억 사이의 혼동

LP판으로 자신이 좋아했던 교향곡을 감상한 사람이 있다. 그는 연주 마지막 무렵 갑자기 심한 소음을 듣고 몹시 놀랐다. 판의 끝 부분이 긁혀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음악 감상이 어떠했는지 물어보면, 아마도 그는 음악 감상을 망쳤다고 대답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지막의 소음 때문에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가 음악 감상 전부를 망친 것은 아니다. 그는 소음이 있었던 마지막 1분을 제외하면 교향곡을 감상했던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즐거운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음악 감상의 마무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전체적 평가는 나쁠 수도 있지만, 사실 음악 감상을 하는 내내 그가 느꼈던 좋은 감정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0분 동안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 평가는 왜 부정적이 될까?

이는 전형적인 기억과 경험 사이의 혼동 사례이다. ‘경험’과 ‘경험에 대한 기억’ 사이의 혼동은 강력한 인지적 착각의 일종이다. 앞의 사례에서처럼 일반인들은 기억과 경험을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좋았던 경험의 순간이 나빴던 경험의 순간에 비해 훨씬 더 오랫동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험을 동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혼동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과거 경험이 영망이었다고 믿게 만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에 의존한다. 우리가 지금 선택한 최상이라고 취한 결과 혹은 미래의 전망 역시 온전히 자신의 기억에 의존한 것들이다. 문제는 기억이 사람들의 취향과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억은 항상 틀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사업 파트너와의 실패 문제도 비슷하다. 동업이 영망으로 끝났다고 해서 파트너와 같이 동업했던 시간들이 항상 나빴던 것은 아니다. 동업 실패는 어쩌면 마지막에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 교향곡 감상과도 같다. 끝이 좋지 못했다고 해서 함께 즐거웠던 시간 모두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일을 제대로 못하는 두 종류의 직원이 있다.
지시한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직원과 지시한 것만을 하는 직원.”**

크리스토퍼 몰리(1890-1957) : 미국의 작가